2026년 7월 26일 주일 3부 예배 [손디모데 목사]

민수기 11 :1 ~ 9
“원망을 딛고 일어나라”

유대인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젊은 외과 의사가 어느 날 노동사역장에서 유리 조각 하나를 감시원의 눈을 피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감추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그는 그 유리 조각을 수용소의 콘크리트 바닥에 날카롭게 갈아 만든 유리조각 면도칼로 하루에 두 번씩 피가 날 정도로 모든 수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있었습니다. 나치의 간수들이 매일매일 모든 그 수용소 사람들을 일렬로 도열을 시켜 놓고 노동의 가치가 없는 사람, 병들고 나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분들을 다 가스에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골라낼 때마다 이 청년은 그 어려운 과정을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새파랗게 면도를 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너무나 뚜렷하게 이 청년에게 보였기 때문에 이 청년을 간수들이 아직도 쓸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그렇게 넘깁니다.

마침내 그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극적으로 살아나는 생존자의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그가 비로소 세상에 나오는데 그 작은 휴지 조각에 기록했던 비망록을 가지고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 하나의 조각 같은 종이 속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원망하며 죽음을 자처하는 것은 가장 쉽고 나약한 방법이다. 죽음 앞에서도 살아보려고 하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창조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힘든 일들로 인해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으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나의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원망을 가장 무서운 죄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원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초점이 흐트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원망의 범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저들이 가장 많이 범했던 범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원망의 범죄였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백성이 여호와에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 11장 4절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살고 있던 타민족들, 불신족의 타민족들이 섞여 있었는데 이들의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도 저들과 함께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여기저기에서 원망을 이렇게 자꾸 불러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타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타민족들을 통해서 원망하는 버릇을 너무나 쉽게 배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고 오히려 화를 불러오는 원망, 이 원망의 원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 원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민수기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정녕 잊어야 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꾸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기억에 대해서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집어넣고 반대로 기억하고 싶은 것들,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을 의식의 주머니에 담아서 보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고 산다면 꽤나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정녕 잊으면 유익할 것들을 자꾸 자꾸 기억하고 또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오히려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 속에 빠집니다. 이 혼란의 결과가 바로 원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식들의 얼굴일 것입니다. 정다운 친구들의 얼굴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신 목사님, 또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바치신 우리 주님을 한 시간도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원망이 솟구칠 때에도 잊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러 번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노예 종살이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 하거라. 잊지 말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몇 가지를 이 망각함으로 인해서 정말 원망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그 첫 번째가 과거 역사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망각했습니다. 저들을 자유케 하셔서 출애굽 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그때그때 메추라기처럼 만나같이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은 망각했습니다. 당연히 내게 주어지는 것 같은 어떤 특권체, 계급에 있는 사람들, 모든 걸 누리는 사람들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묻어 있으면 축복의 가치를 상실하고 감격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슬슬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처음 첫사랑은 식어지기 마련이야. 오히려 이것이 상식이 되는 것처럼 이것이 정상입니까?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뜻한 헌신과 열심도 식어지는 것이 온누리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니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어느덧 프로가 되어서 식어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그 가치를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격을 상실합니다. 감사를 망각합니다. 끝내는 이런 삶 속에는 불평과 원망의 죄

악이 머리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약속의 땅까지 우리를 은혜롭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고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들의 가슴 속에 부어지는 앞으로 도래할 그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삶,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온누리 교회에서 행하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그 사역들 우리가 이 꿈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언약을 잃어버리면 끝내는 감사를 망각하게 되고, 끝내는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죄를 짓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현재의 삶이 그 어떤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어떤 병고적인 문제,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로 어렵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얼룩이 진 오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느덧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내일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망각합니다. 미국에 처음 도달했던 청교도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 삶들을 1년, 2년 지나가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50% 이상의 사람들이 다 병고로 죽고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때 그 청교도들이 자기 삶 속에 가진 좌우명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아직 가장 좋은 것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현재의 삶이 피곤한 중에 있으십니까? 실망 중에 있으십니까? 해도 해도 해봤는데 잘 안 돼서 절망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내게 아직 도래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것을 잊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은 아직 다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검고 볼품없는 씨앗 몇 개들이 땅속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시점에 어느덧 시간이 되면 그 가지 끝에는 파릇파릇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찬란하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의 환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흉측하고 징그러운 벌레가 캄캄하고 어두운 고치 속으로 기어들어 갑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고치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웅크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기다리지만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지지마는 이고치를 깨는 아픔을 통과한 후에 파란 하늘을 마음껏 수놓고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로 탄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여러분에게 적절하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가장 고귀하고 완벽한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가장 좋은 것에 대한 꿈과 이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망각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꿈을 상실한 인생은 원망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유성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청춘과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여러분의 고유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하면, 답답한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펼쳐지는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폭풍우와 비바람이 건넌 그 저편에 내일 새벽에 찬란한 영광을 품으며 떠오르는 그 해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수 있다면, 나의 삶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그 분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고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벌떡 일어설 수 있습니다.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어떤 위대한 유대인 랍비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도 참 감명을 주는 기도였는데, 이 기도는 **오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만 더 부탁합니다. 나에게 인생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이 힘들어서 지금 혹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 질문1 : 말씀에 관련된 자신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나눔 질문2 :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된 부분, 도전이나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나눔 질문3 :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를 다짐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세요!

온누리교회 055)386-0091